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운정 한가람중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정석 기자)

‘생명존중’ 위로·희망, 용인·고양·성남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가 깊어가는 가을, 경기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2025 생명존중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We are the Light'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막을 올린 생명존중 콘서트는 운정 한가람중학교에서 두 번째 콘서트가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인 학교 체육관은 뜨거운 열기와 큰 울림의 감동으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콘서트 무대는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악과 이야기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참여 아티스트들은 역동적인 공연과 진솔한 멘트를 통해 '경쟁 속에서도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완벽하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곡들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학생은 "요즘 학업 등으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 교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단순히 즐기는 공연을 넘어, 이번 콘서트는 학교 내에 설치된 '마음자판기(심리상담 키오스크)' 등 정서 회복을 위한 장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도 됐다.

이날 한가람중학교에서의 행사는 음악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적 연대를 확인하며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세 번째 무대는 10월 23일 용인 구성중학교에서 열렸다. 이 지역은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적응 문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주목해 콘서트 프로그램을 '관계 회복과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공연 사이에 학생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니



▲노라조가 신나는 음악으로 열창하고 있다. (사진=최정석 기자)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통해 공감·위로 하모니 청소년에 '너의 존재는 소중하다' 메시지…긍정적 에너지 등 나눠

롤링페이퍼' 이벤트나,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공감 토크 등을 넣어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31일에는 고양특례시저동고등학교에서 '진로와 미래 설계'를 통한 희망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민인 '진로와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명 멘토의 짧은 강연이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담은 음악 콘텐츠 등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설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11월 6일 행사는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자존감 회복'을 강조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나의 가치 재발견'과 '자존감 회복'을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자

신의 역량과 재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에 나가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서는 전 출연진과 학생, 교직원이 함께 '생명존중 실천 다짐'을 외치며 캠페인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는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매개체"라며, "남은 일정에서도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학교 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정석 기자